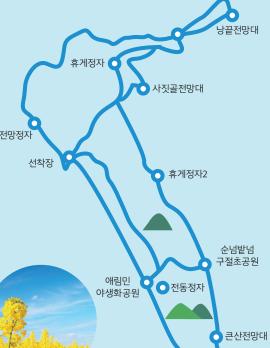
선조 25년 인동장씨가 피난을 떠나 정착했던 섬으로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 꽃섬으로, 두 개의 섬 중 아래쪽에 있어 하화도로 불렸다. 다양한 꽃과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다.



전망정자 하화도 백야도 → 개도(20분) →

11 11 11 11

해송보호수

사도해변

화석지

사도

둘레길

사도교

표지석

낭도항 → 사도(10분) →

태평양1호 1일 3회 운항

→ 백야도(20분)

백야도

선착장

백야도 → 개도(20분) → 하화도(30분)

대형카페리3호

1일 1회 운항

하화도(20분) → 개도(30분)

하화도(30분) → 사도(20분) 태평양3호 1일 3회 운항

사도선착장

(들머리, 날머리)

공룡 테마공원

2 꽃섬길

선착장 → 낭끝전망대 →

하화도 깻넘전망대 6km 큰굴삼거리 애림민 야생화공원 \rightarrow 선착장 막산전망대

양면 해수욕장

주민들의 삶과 함께했던 길, 개도 사람길

배성금 → 정목

개도는 주변에 작은 섬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

1. 여수

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개도 / 하화도 / 사도

여수

연안여객선

터미널

여수시

바다, 산, 길이 어우러진 '섬'을 여행하는 가장

확실한 방법은 여유롭고 느리게 걷는 것이다.

걷기 붐이 일어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길을

찾아 나서고 있지만, 기존에 조성된 섬 길의

흩어진 섬 길의 정보를 모아 제공하기 위해

섬과 섬을 잇는 '섬 순례길'* 코너를 기획했다.

*순례길 : 사전적 의미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방문함을

정보가 흩어져 있어 이를 알기가 쉽지 않았다.

덮을 '개(蓋)'자를 써서 개도라고 불리게 되었다. 개도 사람길은 무성한 동백나무가 이루는 이국적 풍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이자 여석여객선 선착장 섬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$(\mathbf{1})$ 땔감을 구하러 오가던 길이다. 개도선착장 (화산) 엄랑금 모전 **(1)**-개도 4.5km 2 호령마을 1코스 화산선착장 → 호령마을 2코스 3.4km 봉화산 338m 정석포 해수욕장 호령마을 → 배성금 3 3코스 4km

천제봉

Ш

사도는 공룡 발자국이 3,800여 점이나 발견된 신비의 섬으로 해안 산책로를 따라가면 다양한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화석을 관찰할 수 있다. 연 5회, 바닷길이 열릴 때면 사도를 비롯한 7개의 섬이 하나가 되어 섬과 섬을 오갈 수 있다.

태고의 신비를 간직한,

사도 둘레길

(3) 사도 둘레길 4km

 NLS 사도선착장 \to 용미암 \to 사도둘레길 \to 사도선착장

배편 문의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061-662-5454, 백야도 선착장 061-686-6655 **여행 문의** 여수시관광과 061-659-3837

60

61